

본문의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자가 되었던 경험이 있기에, 목자가 양을 지킴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완전한 목자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해 주심으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다고 고백(8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보면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면, 그것으로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소망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 볼 때, 긍휼히 여기시는 소망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2022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6.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족들과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 찬송 405장(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을 부르겠습니다.

1절 :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 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2절 :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절 :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8.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 2022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예 배 순 서

지금부터 설날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 찬송 429장(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을 부르겠습니다.

1절 :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후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2절 :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렵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3절 :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3. 가족을 대표하여 _____ 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설 명절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늘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성실과 진실로 형제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믿음이 자라가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더 아름다운 간증,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4편 7절~8절입니다.

7)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5. 이제 교회에서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다윗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내몰려 사울에게 쫓기며 온갖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추수의 때보다 더욱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 다윗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유에는 그에 따른 기쁨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전세를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면, 첫날은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얻는 소유의 기쁨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면 그날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거나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 다. 더군다나 앞날을 생각하면 더욱 암담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그 마음이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소유의 기쁨보다 더 크고 근원적인 기쁨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제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실 기쁨을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눈을 들어 그분을 바랄 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다윗과 같이 우리 가정도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윗은 완전한 안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밀림에는 새끼사자보다 힘센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끼사자는 자기보다 힘센 동물들이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호하는 어미 사자가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어미 사자의 보호 덕분에 자신의 안전이 담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힘을 얻습니다. 그분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언제든지 동행해 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안전은 담보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나를 대신하여 싸워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